

IT수출 7개월 연속 증가세

지난 7월 IT수출이 지난달 보다 7.4억 달러가 증가한 109.1억 달러로 잠정 집계되었다.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서도 국내 IT기업들의 우수한 제품경쟁력과 시장지배력으로 IT수출액은 '08. 12월 이후 7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하였다.

디스플레이패널(25억 달러, 전년 동월대비 5.2% 증가)은 각국의 수요 진작정책과 맞물린 TV시장 성장 등으로 전년 동월대비 2개월 연속 수출증가를 기록하였으며, 국내업체의 세계시장점유율이 50%에 육박하고 있다.

휴대폰(26.2억 달러, 전년 동월대비 11.3% 감소)은 경기 침체에 따른 교체 수요부진으로 세계시장규모는 축소되었으나, 국내 업체는 폴더치폰 등 프리미엄 제품개발과 유통망 확대를 통한 신흥시장 공략으로 전세계 시장의 30%이상을 차지하였다.

반도체(27.1억 달러, 전년 동월대비 15.6% 감소)는 전방산업인 PC시장이 저가 저사양 노트북인 넷북을 중심으로 성장하여 D램 수요 감소가 발생하고 있으나, 중국의 경기 부양책과 해외 경쟁업체의 반도체 생산량 감소로 수출 감소율이 10%대로 줄어드는 등 감소세가 완화되었다.

국가별로는 중국(홍콩포함)이 46.3억 달러, 미국 14.5억 달러, EU 14.3억 달러, 일본 6.1억 달러, 중남미 6.7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IT수입은 전자부품 36.0억 달러, 컴퓨터 및 주변기기 6.2억 달러 등 주요 품목의 수입 감소로 전년 동월대비 14.1% 감소한 57.4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IT수지는 51.6억 달러 흑자로 전 산업 흑자(51.4억 달러)를 상회하였다.

휴대폰(부분품 포함) : 26.2억 달러 수출, 전년 동월대비 11.3% 감소

전세계 휴대폰 시장은 경기 침체에 따른 교체 수요 부진으로 시장 규모는 축소(△8.2%)되었으나, 국내 업체는 폴더치폰, 고화소 카메라폰 등 프리미엄 제품의 확대와 유통망 확대를 통한 신흥 시장 공략을 통해 시장 점유율이 향상됐다.

* 휴대폰 시장점유율(% , SA) : ('08.1분기)25.0 → (2분기)24.7→(3분기)24.6→(4분기)26.7→('09.1분기)28.0→(2분기)30.1

다만, 휴대폰 수출은 전년 동월의 고성장(21.8%)에 따른 기저효과와 휴대폰 가격 하락으로 전년 동월대비 11.3% 감소했다.

지역별 폴 터치폰 등 신규 모델의 선전과 경쟁사의 부진으로 미국(8.2억 달러, 4.3%) 수출은 증가했으며, 일본(0.5억 달러, 5.5%) 수출도 호전됐다.

반면, EU(4.6억 달러, △23.0%), 중남미(1.3억 달러, △14.6%), 동유럽(1.3억 달러, 20.1%), 중동(0.5억 달러, △20.7%) 수출은 감소를 기록, 중국(홍콩포함, 8.3억 달러, △7.5%) 수출은 최근 국내 생산 비중 확대에 의한 부분품 수출 감소로 역성장했다.

【 휴대폰(부분품 포함) 수출 추이 】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월대비)

구분	08.7	8	9	10	11	12	09.1	2	3	4	5	6	7
금액	29.5	27.8	32.5	37.6	24.0	16.3	21.9	23.7	23.9	24.4	24.9	25.1	26.2
(증감률)	(21.8)	(20.2)	(39.6)	(13.6)	(△25.5)	(△17.4)	(△21.7)	(1.4)	(△21.3)	(△18.4)	(△11.1)	(△7.4)	(△11.3)

반도체 : 27.1억 달러 수출, 전년 동월대비 15.6% 감소

반도체 수출은 전년 동월대비 15.6% 감소한 27.1억 달러로 13개월 연속 감소를 기록했으나, 감소율

은 10%대로 호전됐다.

전방산업인 PC시장이 저가 저사양 노트북인 넷북을 중심으로 성장하여 D램 수요 감소가 발생하고 있으나, 중국의 경기 부양책과 경쟁업체의 구조 조정에 따른 수급 여건 호전으로 수출 감소세가 완화됐다.

D램(8.1억 달러, △25.0%)은 지난달보다 감소율(△33.5%)이 크게 완화됐다.

한편, 낸드플래시는 하이닉스, 도시바 등 주요 업체의 가동률 회복에 따른 가격 하락 반전으로 수출은 전년 동월대비 31.5% 감소한 1.6억 달러이다.

(지역별) 중국(홍콩포함, 12.6억 달러, △13.1%), 미국(2.0억 달러, △19.5%), 일본(3.0억 달러, △1.5%), EU(1.5억 달러, △27.5%) 모두 감소율이 완화됐다.

【반도체 수출 추이】

(단위: 억 달러, %: 전년 동월대비)

구분	'08.7	8	9	10	11	12	'09.1	2	3	4	5	6	7
반도체	32.0	31.0	29.4	25.2	19.4	15.3	15.0	15.4	18.1	21.1	24.0	25.2	27.1
	(△5.9)	(△2.9)	(△10.5)	(△26.1)	(△44.1)	(△49.9)	(△46.9)	(△40.6)	(△38.4)	(△26.2)	(△22.1)	(△23.0)	(△15.6)
메모리	17.3	16.8	14.5	11.4	9.1	7.3	7.2	7.9	8.7	9.8	11.5	12.4	13.3
	(△13.0)	(△21.0)	(△24.2)	(△39.5)	(△50.3)	(△53.8)	(△48.9)	(△42.3)	(△45.2)	(△37.5)	(△32.9)	(△28.9)	(△23.3)
DRAM	10.8	10.9	8.5	6.2	5.1	4.8	4.4	4.4	5.0	5.3	6.3	6.9	8.1
	(1.9)	(△2.0)	(△8.0)	(△23.8)	(△31.7)	(△29.4)	(△36.8)	(△38.5)	(△41.2)	(△37.4)	(△34.0)	(△33.5)	(△25.0)
낸드	2.3	2.0	1.7	1.3	1.1	0.8	1.0	1.1	1.3	1.4	1.7	1.6	1.6
	(△26.4)	(△47.8)	(△47.3)	(△56.0)	(△66.4)	(△76.5)	(△65.4)	(△60.2)	(△42.5)	(△37.6)	(△30.8)	(△31.9)	(△31.5)

* 메모리반도체에 메모리 MCP 포함

패널(부분품 포함) : 25.0억 달러 수출, 전년 동월대비 5.2% 증가

패널 수출은 유통 재고 소진, 각국의 수요 진작 정책과 맞물린 TV 시장 성장 등 대외 여건과 국내 업체의 수직계열화에 따른 탄력적 수요 대응 능력이 경쟁국과 차별화되면서 지난달에 이어 2개월 연속 수출 증가했다.

(지역별) 중국(홍콩포함, 37.7%)은 증가했으나, 멕시코(△18.3%), 브라질(△36.9%), 동유럽(△15.2%) 등은 감소했다.

【패널 수출 추이】

(단위: 억 달러, %: 전년 동월대비)

구분	'08.7	8	9	10	11	12	'09.1	2	3	4	5	6	7
금액	23.8	23.6	25.3	24.1	18.5	12.3	12.4	15.0	19.4	20.3	21.1	22.4	25.0
증감률	(37.3)	(15.4)	(27.4)	(3.6)	(△18.6)	(△41.2)	(△40.8)	(△24.1)	(△2.7)	(△8.6)	(△7.2)	(△4.0)	(15.2)

칼라 TV(부분품 포함) : 4.5억 달러 수출, 전년 동월대비 18.4% 감소

TV는 생산의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하는 산업 특성 때문에 국내 업체의 시장 점유율 확대에도 불구하고, 칼라 TV 수출은 18.4% 감소했다.

* LCD TV 시장 점유율(%): ('06) 22.2→('07) 26.7→('08) 32.6→('09.1분기) 33.3

- LCD TV(0.5억 달러, △35.3%), TV부분품(3.7억 달러, △15.0%)은 두 자릿수 수출 감소율을 기록

*LCDTV가격(42인치, \$):('08.12)1,042→('09.1)1,033→(2)1,007→(3)926→(4)961→(5)983→(6)985→(7)994

(지역별) 주요 생산 거점 중 중국(홍콩포함, △41.9%), 멕시코(△15.4%), 폴란드(△0.5%)는 감소했으나, 헝가리(28.3%), 인도(45.7%) 등은 증가했다.

【칼라TV(부분품 포함) 수출 추이】

(단위: 억 달러, %: 전년 동월대비)

구분	'08.7	8	9	10	11	12	'09.1	2	3	4	5	6	7
칼라TV	5.5	4.9	5.5	4.4	2.3	2.1	2.8	3.4	4.4	4.8	3.9	4.1	4.5
부분품 포함	(13.1)	(△20.9)	(1.5)	(△36.9)	(△59.9)	(△60.4)	(△48.7)	(△38.8)	(△28.7)	(△18.5)	(△26.6)	(△22.4)	(△18.4)
LCD TV	0.7	0.5	0.6	0.5	0.5	0.3	0.3	0.3	0.4	0.4	0.5	0.5	0.5
	(27.3)	(△29.7)	(23.4)	(△24.9)	(△9.8)	(△47.2)	(△47.0)	(△33.3)	(△36.8)	(△29.5)	(△27.3)	(△2.8)	(△35.3)
PDP-TV	0.3	0.3	0.3	0.3	0.2	0.2	0.2	0.2	0.2	0.2	0.4	0.3	0.2
	(15.7)	(△25.4)	(76.8)	(△34.7)	(△48.4)	(△39.6)	(△27.0)	(△20.8)	(△34.1)	(△12.8)	(6.3)	(△26.8)	(△18.4)
TV부분품	4.4	4.1	4.5	3.6	1.7	1.5	2.3	2.8	3.7	4.1	3.1	3.3	3.7
	(12.1)	(△18.6)	(0.6)	(△38.9)	(△66.0)	(△64.4)	(△49.8)	(△40.3)	(△27.5)	(△17.7)	(△28.4)	(△24.0)	(△5.0)

기타

HDD(1.3억 달러, △26.3%) 세탁기(0.5억 달러, △5.5%) 셋탑박스(0.4억 달러, △2.9%)등은 부진했으나, 프린터(0.8억 달러, 11.4%) 수출은 선전했다.